

# 위대한 령장을 모신 조선의 어제와 오늘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달려든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불의의 무력침공에 맞서 온 나라 인민이 조국수호전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던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갔다.

세월은 퍼그나 흘렀지만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조국의 귀환, 평화의 소중함을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조선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규모가 가장 큰 전쟁이었다. 비록 크지 않은 조선반도의 한정된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나 참전국수와 참전병력수 그리고 소비된 전쟁물자를 놓고 보면 가히 세계적인 규모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수적,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던 제국주의 침략세력은 전투마다 무리죽음을 내고 패배를 거듭하였으며 종당에는 영웅적조선인민애에 무릎 꿇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국주의 연합세력에 맞서 싸운 공화국은 창건된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방후 5년동안 땅과 공장,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려온 공화국인민은 다시는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싸웠으며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조국의 자유독립과 인

민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이 위대한 승리로 하여 공화국은 영웅의 나라로, 공화국인민은 영웅적인 민으로 세계에 그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인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제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빛나는 승리이며 전체인민의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이 안아온 군사적기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탁월한 사상과 지략, 뛰어난 명군술을 지니시고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셨다.

공화국이 침략세력의 불의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사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할수 있었던것은, 전쟁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불과 몇달안에 남조선의 거의 전 지역을 해방할수 있었던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법과 명군술이 안아온 기적이었다.

전설적명장의 그 기상과 신묘한 지략앞에서는 적들의 그 어떤 기도도 맥을 추지 못했다.

외국의 어느 한 도서에는 침략세력이 명성높은 많은 장군들을 조선전쟁에 파견하였으나 불리한 전쟁형세를 역전시킬수 없었다고 하면서 상대인 북조선군총수 김일성장군이 30대의 젊은 장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수

운 현실이 펼쳐지고 과학인이 창설되었으며 무상치료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는 등 전설같은 일들이 생겨날수 있었던것은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세계, 신념과 락관의 세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주제40(1951)년 1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시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었

다. 오래도록 전쟁에 의해 파괴된 시내를 부강하시던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전쟁이 끝나면 평양을 새로 건설해야겠는데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시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얼떨떨해있는 그들을 일별하시며 수령님께서서는 지금부터 평양시를 일떠세울 준비를 잘해야 하겠다고, 우

리는 이 재더미를 밀어버리고 새로운 평양,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대도시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아마 우리가 전후복구 건설을 설계한다는것을 전선동무들과 인민들이 알면 큰 힘이 될것이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평양주재 전 조선신문 《브라우더》 투파기자였던

울라지미르 톨스즈코브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 전쟁에서 두 세력간의 메꿀수 없는 격차, 이것은 바로 전쟁을 령도하는 령도자들의 정치철학과 세계관, 군사적능력과 인생체합 등 모든 면에서의 질적차이가 가져오는 필연적결과라고 생각한다.》

3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공화국의 인민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은 그 어떤 강자도 능히 타당할수 있으며 그 무엇으로도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안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해나가는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음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오늘 공화국은 또 한분의 위대한 령장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모시어 발전과 번영의 최전성기를 누리고있다.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을 굴복시켜보려고 갖은 제재와 군사적위협수동에 매달려왔다. 력사의 온갖 도전장을 맞받아 전인민의 가슴마로 역경을 뚫고나가야 하는 시련의 그 시기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군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었다. 조국방선의 하늘, 땅, 바다 초소들과 진지들에 조국수호와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위해 이어가신 그이의 정력적인 군령도의 자욱이 새겨져 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의 침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국가발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술이신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방위력은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어제날 원자탄을 가진 제국주의강적과 보병총으로 맞서싸워서도 승리한 조선은 오늘 강위력한 전쟁역력을 보유하고있다. 공화국의 군대는 지난 조선전쟁때와는 대비할수 없게 강화되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장군 70동경축 열병식에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강대하고 융성번영할것이라고 엄숙히 언명하시었다.

오늘 적대세력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로 역경을 뚫고나가야 하는 시련의 그 시기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군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었다. 조국방선의 하늘, 땅, 바다 초소들과 진지들에 조국수호와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위해 이어가신 그이의 정력적인 군령도의 자욱이 새겨져 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자랑찬 전승의 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전쟁로병들 (2015년 7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앞마당에 세워진 부주제군상들의 일부

## 수령결사옹위 기 공화국의 무변 (2)

공화국에서 최고존엄은 인민의 생명이며 정신적기둥으로 되고있다. 수령이 계시어 자주적이며 행복한 인민이 있고 모든 승리와 영광도 있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어느 한때도 내리운적이 없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갈피마다에도 그 감동깊은 화폭이 수없이 새겨졌다.

공화국의 인민들에게 있어서 조국해방전쟁은 수령님 안겨주신 인민의 세상, 행복의 요람을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목숨바쳐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전쟁 전기간 싸우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역척같이 새겨져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은 말그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었다.

수령님 계시는 평양의 상공을 목숨바쳐 지키자며 적기와 맞서싸운 하늘의 매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청춘이지만 불뽕은 적의 화구를 서슴없이 몸으로 막은 18살의 리수복영웅, 나의 팔다리는 부서졌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굳게 다져진 불굴의 투지를 보여 주리라고 웨치며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에 육탄으로 돌입한 강호영영웅...

단 4문의 포와 한개 중대의 력량으로 약 1 000대의 비행기, 수백척의 함선, 5만여명의 대병력과 싸워 3일간이나 섬을 지켜낸 월미도용사들의 영웅적인 삶은 무엇으로 더욱 빛나는것인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그들이 목숨바쳐 지켜선 월미도의 뒤로는 수령님 계시는 평양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들은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심장의 더운 피를 합쳐 이런 맹세문을 남겼다.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이시여!

...

우리들은 적들과의 결사전을 앞둔 이 준엄한 시각에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던 지난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봅니다.

우리들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 한 몸을 바친다한들 어찌 수령님의 그 높으신 은덕과 사랑에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이라도 보답할수 있겠습니까! 경에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았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강철같은 혁명전사로 자란 우리들은 조국의 섬 월미도를 지켜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원수와 싸울것을 최고사령관동지께 굳게 맹세합니다.

조국의 통일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경에하는 수령님께서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이것이 바로 력량상 대비가 되지 않는 간고한 전투에서도 추호의 굴함도 없이 끝까지 싸운 용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이다.

어찌 이룰뿐이랴.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은 집의 근처에 적기가 떴군 큰 불발탄이 박혔을 때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제거한 인민군인들, 불비 쏟아지는 최전선으로 전사들을 찾아가시는 수령님의 앞길을 막아나시며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더는 나가주시 말아주시 오라고 간절히 아뢰인 내어린 처녀병사...

이처럼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승리만을 떨쳐가는 공화국력사에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

수령결사옹위의 영광스러운 전통은 오늘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결렬한 혁명정신, 당중앙결사옹위정신으로 꽃피어 이어지고있다.

수령결사옹위는 공화국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의 근본핵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의무이기 전에 삶의 요구, 량심과 의리로 여기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자기 수령을 온몸과 심장을 바쳐 따르는 인민은 이 세상에 오직 공화국인민밖에 없다.

가렬치절한 전화의 나날이나 이 후 평화적인 건설의 나날이나 한모습 변치 않고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굳세게 이어오고있는 공화국인민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 ◎ 비범한 지략과 명군술로 ◎

### 《귀신이 곡할노릇》

인민군대가 서울을 해방한 이튿날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 해군지휘관에게 동해에서 움직이고 있는 적함대를 담배기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면서 그러자면 얼마만한 력량이 필요하겠는가를 알아보시었다.

그 지휘관은 세계적으로도 공인된 어느 나라의 해군전투교범을 레로 들면서 중순양함집단에 돌입하자면 적어도 수십대의 비행기와 수십척의 어뢰정이 합동타격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자기 견해를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던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아직 어뢰정이 적고 또 해군에 비행기를 지원할 형편도 못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놈들이 조선동해에서 마음대로 날치면서 야수적인 함

포사격을 감행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2어뢰정대로 적의 중순양함을 까부실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었다.

당시 인민군해군의 유일한 제2어뢰정대가 보유하고있는 어뢰정은 단 네척뿐이었다. 반대로 적함선집단은 1만 7 000t급의 중순양함 《블리토》호와 1만 4 000t급의 경순양함, 3 500t급의 원양구축함에 각종 포가 근 200문이나 되고 유생력량도 3 350여명이나 되었다. 결국 인

민군대의 어뢰정대는 규모와 무장장비에서 적군의 440분의 1, 력량도 불과 105분의 1밖에 안되었다.

하지만 그이의 작전적의도에 따라 어뢰정대는 주문진앞바다에서 적의 함선집단에 대한 대담한 공격을 단행하여 중순양함 《블리토》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은 격상시키었다.

세계는 어뢰정대의 혁혁한 전과에 대해 력사에 류례없는 해전상보로 죽가마 뚫듯 하였고 세계의 면전에서 대참패를 당한 적들은 《귀신이 곡할노릇》이라고 개탄하였었다.

세계는 어뢰정대의 혁혁한 전과에 대해 력사에 류례없는 해전상보로 죽가마 뚫듯 하였고 세계의 면전에서 대참패를 당한 적들은 《귀신이 곡할노릇》이라고 개탄하였었다.

익측에서 적들을 압축타격하도록 하는것이였다. 동시에 대전동남쪽에 진출하여 포위전에 합세할 립함부대가 적의 저항으로 지체되는 경우 문산계선에 진출한 부대들의 일부 력량을 대전동남쪽으로 신속히 우회기동시켜 적의 퇴로와 중원부대의 진격로를 차단함으로써 적들을 빠른 시간내에 완전히 포위하도록 하는것이 그이의 작전적의도였다.

7월 20일 새벽 5시, 수령님께서서는 대전시가에 대한 총공격을 명령하시었다.

세계의 그 어느 병사에도 없는 그이의 독창적인 주제전법과 탁월한 명군술에 의해 현대포위전의 모범으로 창조된 대전해방작전은 수만명의 적을 살상포로하고 150문의 각종 포와 1 000여대의 군용차 등 수많은 전투기술기재들을 파괴, 로획한 인민군대의 빛나는 전과로 그날 낮 12시 막을 내리었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을 과시하는 백승의 대오